

큰 스님 수행한담

조화이를 때 평화와요”

예의 그 화두를 내려 주시고는 “어디 한번 잘 해보라” 하시며 빙글레 미소지으셨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후 나름대로는 참선합체하고 떠벌였지만 실상은 거의 잊고 살았는데 하루는 큰절에 내려오니 어느 스님이 부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팔상록(八相錄)>을 주셨다. 물론 전월사 뒷방에서 읽고있는데 (만공스님께서 책 보는데를 엄히 경계하시던 터라) 만공스님께서 문을 열어보시더니 아무말 없이 그냥 가시는 겁니다. 꽃아가 무릎꿇고 참화를 드리니 “네놈이 참선을 한다고! 저 아랫마을 강아지가 성불하면 됐지, 네 놈은 성불할 수 없겠다. 차라리 열불이나 배우고 선업을 쌓는것이 좋겠다” 하시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듯한 절망속에 죽고싶은 마음밖에 안들었습니다.

이왕 죽어버리는 나도 한번 참선이라도 잘 해보고 죽어야겠다는 분심(信心)이 일어나 그전 화두에 대한 새로운 의식이 솟아나더라 이말입니다.

만공 스님께서 항상 “참선을 용케 잘 하려면 천연의 의식이 뒷받쳐야 하느니라” 하시었는데 아마 그때 나도 천의(天賦)가 비로서 뒷받쳐준 것 같아요.

그때 만공스님 추상같은 꾸지람을 듣고는 “성불 못합니까는 죽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래도 이왕 죽을 바에는

보나 사람들이 공포심 분노심 불평등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에 사는 동물 식물까지 모두 “평화를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모두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평화가 오고 비로소 한 뿌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일화’의 정신이야말로 온 인류(人類)가 함께 받아 안아 실천해야 할 정신이라 믿습니다.

만공스님께서는 열반직전에 최후설(最後說)을 통해 “내 법문이 들리지 않을때에도 사라지지 않는 내 면목(面目)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니라” 하시었다하니 실로 큰스님께서는 ‘인간 가운데 가장 인간다운 분’이요, 인간의 진면목이시고 또 허공과 같은 ‘인간’이란 생각이 듭니다. 허공이 어디 없지도 않고 활기가 없듯이 말입니다. 그것은 나를 찾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 생사를 벗어나 대자유를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멋진 일입니까? 이미 그 깨달은 경지에는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하나도 남음이 없는 것입니다. 들어도 들은 바없고 보아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자기일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충실하되 보는 눈, 듣는 눈, 먹는 눈, 입는 눈 그 눈을 똑똑히 보면 그대로 여래가 된다는 말입니다. 달마조

“광복맞아 무궁화 꽃잎에 먹 묻혀 ‘世界一花’ 휘호하신 만공스님 뜻은 인류가 함께 해야 할 정신입니다”



◇덕숭산 동편 산정에 한간 초당 전월사 정원에서 만공스님(사진 중앙)이 시자를과 함께 찍은 최후의 사진. 오른쪽 끝으로부터, 원담, 수입, 성오, 수련스님 이다.

“생활에서 깨달음 찾되 밖에서 구하지 마세요” 집착때문에 방황과 고통... 방하착해야 벗어나

참선을 하다 죽어야겠다는 생각하고 전월사 뒷방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시계를 보며 자정까지 오롯하게 화두를 돌던 죽지 않고 수마에 떨어지면 죽어야겠다는 하고 참선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자가 되겠다고 맘을 세웠으면 반드시 공수에 도달해야 할 깨달음을 목숨걸고 구하십시오. 죽는다는 그 마음조차 버리고 용맹장진 하세요. 형주좌와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맘을 쏟으란 말입니다.

그후 일제말기라 내게도 집집장장이 나왔기에 어떻게 해야할지 만공스님께 여쭙었습니다. 만공스님은 “일제는 반드시 머지않아 망(亡)하느니라. 너는 간월도에 들어가 조국광복기원 천일기도를 하며 지내거라” 하셨습니다.

회향후 돌아오니 일본의 패망과 조국의 광복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공스님께서는 그 즉시 정해사로 내려가셔서 무궁화 꽃잎을 파서 먹음으로써 “世界一花(세계일화)”라 쓰셨습니다. 스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너와 나, 해와 달, 공기와 물이 같이 아니며 같은 뿌리, 같은 근원을 갖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요즘 사바세계는 어디를

사가 ‘안으로 헐떡거리는 마을을 쉬고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게하라’하신 그 뜻입니다. 그리고 ‘놓아 버리는 것’이것이 지름길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때 고탈을 갔을 때에 생각하고 계셨는데 한 바라문이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려고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갑자기 부처님께서 “놓아버려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라문은 왼손에 들었던 꽃을 놓아 버렸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놓아버려라”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러자 바라문은 왼 손에 들었던 꽃을 놓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놓아버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문은 멍청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버릴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바라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관념과 사고와 주관적 판단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것을 버리라는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세속적인 것에 착상해서 살고 있습니다. 삶에 어지간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탐진치 삼독에 가득 물들어

있습니다. 많은 중생들이 탐진치 삼독에 빠져서 오늘까지 이물러 왔을런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4대가 흩어지고 안광낙처시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냐는 것입니다. 불나비가 제 죽음을 모르고 불속에 뛰어 드는 것과 같고. 예리한 칼끝에 묻혀 있는 꿀을 빨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모양이진 것에 집착해 보지만 잡으려들면 신기루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집착하기 때문에 끝없는 방황과 착각과 고통에서 허덕일 뿐입니다. 답은 부처님이 주셨듯이 방하착(放下着)하십시오. 진실로 삶의 참된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놓아버려 버리십시오. 그 때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입산후 행자생활을 무려 5년 가까이 하였습니다. 많은 스님들이 상좌를 삼으려 했지만 그때마다 “나는 이미 마음속에 정한 스님이 있습니다”하고는 버린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만공 큰스님께서 조용히 불려 이르시길 “내가 이제 은사스님을 정하여 할터인데, 내 생각에는 벽초스님이 선지가 밝으니 그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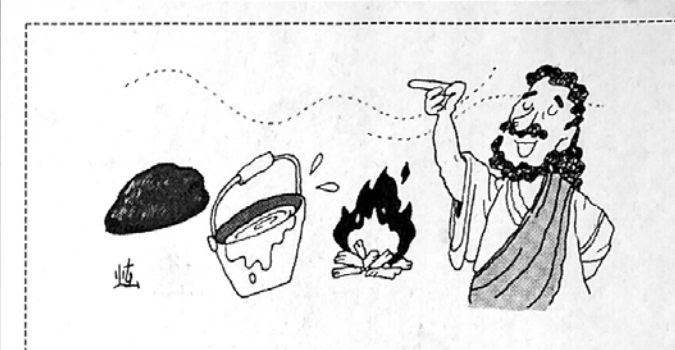
님을 은사스님으로 하여라” 하시시느니라. 벽초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습다. 물론 만공스님께서 계사가 되어 주셨습다.

나의 은사인 벽초스님은 힘이 장사 이신데 일하는 방법을 알아 웬만한 도련수 저리 가리는 식으로 온갖 대소불사를 주관했으며 선지에도 뛰어난 선봉일치의 삶을 살아오신 ‘한국의 백장스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스님은 일을 수행으로 삼으셨습니다. 항상 양손에 소가 먹는 여물을 들고다니셨어요.

만공 큰스님이 내 법의 스승이리던 벽초스님은 내 중노릇하는 삶의 스승이셨습니다. 만공스님께서 열반에 드신후 비로서 처음으로 몇해를 전국 곳곳을 유랑한 적이 있습니다.

통사 극락산원을 찾아가니 경봉스님께서 “어디서 왔고?” “덕숭산에서 왔습니다.” “스님은 누구 누구시냐?” “승만공스님입니다.” “만공스님께서 무슨 공을 보여주더냐?” “한시기에 두주먹을 쥐고 손을 높이 쳐들며 “이것을 보여주다. 스님께서도 이것이 있습니까?” 하니 허허 웃으시며 앉으라 하시었습니다.

이렇게 나 말고는 부처가 따로 없고, 부처 말고는 내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를 찾는 것이 곧 자기를 찾는 것이요, 자기를 찾는 것이 곧 부처를 찾는 것입니다.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달아 미치는 일이지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결재요 해제를 뜻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지요.



연금술(alchemy)이란 어떤 물질을 다른 물질로 바꾸는 기술이다. 고대 이집트의 흑토(Khem)에서 나온 이름으로 이곳에서는 일찍부터 연을 생산하여 이것을 다른 물질로 바꾸는 기술을 연마해왔다. 중국은 기원전 4세기에 벌써 수은화합물을 다루는 연단술이란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 기원전 3세기경 알렉산더 왕이 동방원정을 할 때 참가했던 프로타메이 장군은 이집트를 정복하고 알렉산드리아란 도시를 만들었다. 이 도시는 50만 권의 책을 보관하는 대도서관을 만들어 그 당시 학문의 중심지가 됐다. 이 도서관에는 3세기경 조시모스가 저술한 가장 오래된 화학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비금속을 귀금속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고 인조보석을 염색하는 법이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연금술사들은 물과 흙으로 무엇이 생기고 불과 공기로 황이 생긴다고 회화하면 불이 되고 농축하면 물이 되고 고체가 된다고 생각했다. 기원전 5, 6세기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은 불이라고 했다. 그는 유전사상을 제창하면서 “만물은 운동하고 변화를 그치지 않는다. 불은 끝없이 순환하여 더 나은 형상으로 간다. 불을 물로 쓰면 불은 물로 바뀌고 물 일부는 불의 정(精)으로 변하여 하늘로, 일부는 흙으로 돌아 간다. 그리고 흙에서 다시 불이 생기고 물에서 불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런 주장들이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정리되어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4원소설이 정립된다. 4원소설이란 물질의 기본은 네 가지 물질인 흙, 물, 불, 공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로써 염색제도를 인체 구성비를 설명하면서 뼈는 불, 물, 공기가 4대 2대 2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요 피와 살은 각각 1대 1대 1로 구성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박순달 4대와 原子

4원소론 원시불교 4대론과 상통 인도-그리스 3세기 이후 학문교류

다음, 이 수은과 황이 혼합되어 금속이 생긴다고 생각했다. 이런 연금술은 후에 수은이나 납으로 금이나 은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많은 연금술사들은 비금속에 어떤 특별한 물질을 섞으면 금이 되는 물질을 발견하려고 했다. 이 물질을 ‘철학자의 돌’, ‘현자의 돌’이라고 불렀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자 연금술은 점차 마신, 사이비화학, 점성술과 결합하여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비록 금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연금술은 그 후 금속을 다루는 기술의 초석이 됐다. 지하자원의 금속을 생산하는 기술로 발전하기도 하고 특히 귀금속을 정제하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요사이의 자연 상태에서 물질이 변화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고 인공적으로도 물질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게 됐다.

고대 그리스는 일찍부터 학문이 발달하면서 물질에 대해서도 철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기원전 6, 7세기 기하학의 시조이자 그리스 과학의 시조인 탈레스는 “세계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물이라고 대답하였다. 즉 만물을 이루는 기본물질은 물이라고 하였다. 아나시메네스는 기본물질은 공기라고 하

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나무가 불타는 것은 불이 불어 연기(공기)를 내고 나머지는 흙이 되며 이 때 수증기(물)가 발생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리고 4원소가 4가지 성질(溫, 乾, 濕, 冷)에 대해서는 흙은 차갑고 건조한 성질, 물은 습하면서 차가운 성질, 불은 뜨겁고 건조한 성질, 공기는 뜨겁고 습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4원소설이 정립된 뒤 서양에서는 중세까지 유지됐다. 로마시대에는 순수 과학보다는 토목, 건축이 발달하였는데 예로 도로, 아치식 구조의 수도시설 등 많은 건축물, 많은 병기 등을 들 수 있다. 그 동안 물질이론에 발전이 있었다면 로마시대 루크레티우스가 저술한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란 책과 15세기 과학자 파라켈수스는 모든 물체도 불로 태워면 유황, 수은, 염소로 나누어진다는 3원질론을 주장했다는 정도이다. 원시불교시대의 4대론과 그리스시대의 4원소설은 같다. 4대론은 기원전 6-8 세기경에 완성되어 불교이론가들에 의해 더욱 발전했다. 한편 그리스는 기원전 4세기경에 4원소설을 완성하는데 알렉산더의 동방원정이 3세기경이므로 그 이후부터 인도와 그리스의 학문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서울대·산업공학>

1997학년도 제6기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법사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통신출강

불교교육·법사교육, 법사를 양성하는 도량, 한국불교법사대학! 선교방편으로 포교하는 법사(法師)

☑ 체계적인 불교공부보 민음을 성취하고 인격적 신행이 온전함에 이르도록 무량광대한 법사의 길을 한국불교법사대학 도량에서 함께 열어 갑시다!!

특 전

- 각 과정 수료시 법사호품수호 소장의 법사자격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법사불교신문에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 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 거취)

韓國佛敎法師總聯合會 附設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지동 110-1번지 (건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 737-5305 FAX : (02) 720-1836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 교 학 과	2년 4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통신 4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외국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환관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타종 승려 포교사도 가능)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60명 •통신 40명		
중 국 어 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불 교 미 술 과	2년	•주간 20명		
신문방송과(불교포교과)	2년	•주간 40명 •통신 2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과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93. 3 불교미술과·불교포교(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4.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통역과 개설
95. 8 중급법학정의학대학 본교체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96. 11 본교학생 36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7.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20명 취득예정(취득예정 수료후)
97. 2 제6회 졸업생 배출 예정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7년 1월 29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 511-2026-8 광주 삼부서점 : 222-0258
조계사 앞 삼부서점 : 732-9904, 부산 영광동서 : 816-9500
대구제일서점 : 424-0801, 대전문경서점 : 252-8558
마산학문당 : 46-2925, 인천 대한서점 : 762-7337
김해 오복당 : 36-2105, 전주 흥지사점 : 88-5311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삼 화 불 교 대 학

우편번호 136-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 511-1080